



나눔은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10001

Phone : 646. 832. 7397

212. 736. 8500 (EXT 355, 384)

Website : <https://stfrancisnyc.org/>

Email: seoulosb@gmail.com

주임신부 : Brian J. Jordan, OFM

지도신부 : 이웅희 루카 (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luke0829ofm@gmail.com

전교수녀 : 안 마리루시 (투스캄파고베네딕도회서울수녀원) seoulosb@gmail.com

사목회장 : 장철순 스테파노 646. 322. 2139 stfrancis.cj@gmail.com

제1독서 | 지혜 12,13.16-19

화답송 | 시편 65(64),10ㄱ-ㄴ,ㄷ.10ㄹ-11.12-13.14(◎ 루카 8,8)



(후렴) 주님, 당신은 여질 - 고 용서 하시는 분이시 옵 니 다.

○ 주님, 당신은 어질고 용서하시는 분, 당신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자애가 넘치시나이다. 주님, 제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애원하는 제 소리를 들어 주소서. ◎

○ 주님, 당신이 만드신 민족들이 모두 모여 와, 당신 앞에 엎드려, 당신 이름에 영광을 바치리이다. 당신은 위대하시며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 당신 홀로 하느님이시옵니다. ◎

○ 주님, 당신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신 하느님, 분노에는 더디시나 자애와 진실은 넘치시나이다. 저를 돌아보시어 자비를 베푸소서. ◎

제2독서 | 로마 8,26-27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찬미받으소서. 아버지는 하늘 나라의 신비를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 ◎ 알렐루야.

복음 | 마태 13,24-43

영성체송 | 당신 기적들 기억하게 하시니, 주님은 너그럽고 자비로우시다. 당신 경외하는 이들에게 양식을 주신다.

성가 | 입당 2 예물준비 241(219)
영성체 176(175) 파견 77

신앙고백: 사도신경

† 전능하신 천주 성부

◎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밀줄 부분에서 고개를 숙인다.)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미사 봉헌

연미사 지향

- 김예경 안젤라 Helene, Johansson
- 김승진 리처드의 영혼을 위하여
- 노혜영 리오바 영원한 안식을 위해
- 진길춘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
- 노재준 요한, 안을선 모니카
- 이종현, 목영순 영원한 안식을 위해
- 김상규 노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
- 안봉선 데레사의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

생미사 지향

- 정제임스 사도요한 50세 생일을 맞이하여
- 정제임스 대자 장동환 헨리코 생일, 축일을 위하여
- 민정신 아폴로니아
- 장혜윤 크리스티나 축일을 위하여
- 김신욱 토마스 축일 위하여
- 이로진 요한, 이로잔 캐더린 영육 건강을 위하여
- 정제임스 사도요한 생일을 축하하며

날짜	해설	1독서	2독서	보편지향	성체 분배	복사
7월 19일	장혜윤	강호영	이경자	강호영 이경자	김종선 이영혜	김수현 이예진
7월 26일	정유진	민완준	민덕미	민완준 민덕미	유정옥 정다경	한서희 최예준

미사, 성사, 교리 안내		
주일 미사	오전 09:15 대성전	
청년 미사	매달 둘째 토요일 오후 4:00 소성전	
고해 성사	08:30-08:50 아래 성당 고해소	
혼인 성사	면담 후 결정	*신청: Sr. 마리루시
유아 세례	면담 후 결정	*신청: Sr. 마리루시
봉 성 체	매월 1번째 목요일	*신청: Sr. 마리루시
예비신자 교리	일반인을 위한 교리 *신청: Sr. 마리루시	
견진 교리	방문교리(환자/어르신)*신청: Sr. 마리루시	

주일 미사 후 친교 모임

산 다미아노 홀/ 성당 밖 좌측 20m

오랜만에 성당에 나오신 분, 새로 전입오신 분, 처음 뵙는 분들께 먼저 다가가 따뜻한 인사를 나눕시다.

재속프란치스코회 뉴욕 한국순교자형제회

(Monthly Meeting: Secular Franciscan Order of New York Korean Martyrs Fraternity)

일시: 매월 첫째 주일 12:00-5:00 PM.

장소: 아랫성당(Church of St. Francis of Assisi)

대상자: 지원자/ 입회자/ 유기서약자/ 종신서약자

문의: 718-344-9790 정기열 프란치스코

제30차 2026년 미동북부 성령대회

주제: "하느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루카 17, 21)

일시: 7월 25일(토) 오전 9:00-오후 8:30,

7월 26일(주일) 오후 12:00-오후 6:00

장소: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280 Parker Ave. Maplewood, NJ 07040)

강사: 김성기 안드레아 신부 (예수회 호주 관구),

조홍래 베드로 신부, 신용문 야고보 신부

참가비: \$40 (토요일 점심 저녁, 주일 점심 포함)

신청: 917-929-4242(성령기도회장 민재인 데레사)

주최: 미동북부 성령쇄신 봉사회(지도신부: 조민현 요셉)

2027년 부활 세례/견진성사 희망자 모집

2027년 부활성야에 세례/견진 받으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대상: 1) 세례를 받기 원하시는 분(예비신자)

2) 세례를 받은 사람 중 견진 희망자

(다른 성당에서 세례를 받은 분은 세례증명서 제출 필수)

모집기간: 2026년 8월 30일까지

교육기간: 2026년 9월 13일- 2027년 3월 29일

신청 방식: 신청서 작성 후 제출

(양식신청 및 제출 seoulosb@gmail.com)

신청/문의: 646. 832. 7397 (Sr. 마리루시)

* 2027년부터 세례 받으시는 분은 세례성사와 견진성사를 동시에 받습니다. 또한 2027년 이전 세례받으신 분들은 견진성사를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7년 달력 광고 신청

2027년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달력을 제작합니다. 사업체 광고를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바랍니다.

신청 마감: 7월 26일(주일)까지

광고게재비: \$200

신청: 재무 데스크

*광고가 확정된 분들은 달력에 게재할 광고 시안을 seoulosb@gmail.com(Sr. 마리루시)로 보내 주십시오.

수녀님과 함께 하는 54일 묵주기도

: 2차 후속모임 & 3차 시작모임

제2차 '54일 묵주기도' 후속 모임 및 3차 54일 묵주기도 시작 모임을 함께 합니다. 묵주기도 첫날에 함께 모여 기도하고 이후 개별로 기도합니다.

(*기도 기간 동안 2-3회 중간모임 있을 예정)

날짜: 오늘, 11:00PM(준비물: 묵주) 장소: 산 다미아노홀

2026년 하반기 청년피정

청년회에서 2026년 하반기 청년피정을 진행합니다. 신앙 안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함께 은총을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으니,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주제: "그들은 배를 저어다 물에 대어 놓은 다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루카 5,11)

일시: 9/18(금) - 9/20(주일) (2박 3일)

장소: Seminary of the Immaculate Conception

참가비: 엘리버드(-7/30) \$280, 일반 \$330

신청마감: 8월 30일까지

문의사항: 929-660-4456(청년분과장 진현중 빈첸시오)

8월 2일 헌혈 행사

최근 뉴욕시에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혈액 부족 사태를 해결하고자 본당에서 대규모 헌혈 행사를 개최합니다. 교우분들의 적극적 동참 바랍니다.

시간: 9:00AM-3:00 PM.

장소: 산 다미아노홀

참가방법: 홈페이지의 양식서 작성 또는 브라이언 주임신부님을 통해 등록 양식 작성(Fr. Brian Tel. 212-736-8500 ext. 232 or bjordan@stfrancisnyc.org.)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부탁드립니다.

- 행사로 인해 8월 2일 친교모임은 없습니다.

오늘의 말씀

"그때에 의인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마태 13,43)

* 고 노혜영(리오바) 자매님 유족분들께서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떡을 보내 주셨습니다. 친교모임에서 나눕니다.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stfrancisnyc.org > 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주보

기부

✿ 신앙의 선조들을 찾아서

124위 복자 : 복자 이순이 루갈다
(1782-1802)



이순이 루갈다는 한양의 신앙 깊은 양반 가문에서 태어났다. 1801년 순교한 유중철 요한의 아내이며, 1802년 순교한 이경도 가롤로와 1827년 순교한 이경언 바오로의 누이이다. 부친 이윤하 마태오는 초기 교회 신앙을 받아들이는 인물로, 어머니와 함께 어린 이순이에게 교리를 가르쳤다. 이순이는 1795년 주문모 야고보 신부에게 첫영성체를 받은 뒤 동정을 지키기로

결심했고, 같은 뜻을 지닌 유중철과 혼인하여 부부가 오누이처럼 살아가는 동정 부부의 삶을 살았다. 1801년 신유박해 때 시아버지 유항검 아우구스티노와 남편이 먼저 체포되었고, 이어 자신도 가족과 함께 옥에 갇혔다. 그녀는 옥중에서 가족들을 위로하며 함께 순교할 것을 권했고, 언니들에게 보낸 편지에는 순교를 결심한 뒤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느님의 은총과 기쁨이 가득했다고 고백했다. 처음에는 유배형을 선고받았으나 다시 체포되어 사형을 선고받았고, 혹독한 형벌에도 신앙을 굽히지 않았다. 결국 1802년 1월 31일 전주 숭정에서 친척들과 함께 참수형으로 순교했는데, 당시 나이는 스무 살이었다.

성화_김형주 作,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 하느님의 종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6

*출처: <의정부주보>, No. 1191, 가해, 2026. 07. 19

투병 중이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Mt 25,4)

김택영알버트 이옥기수산나 이남석베드로
이경희미카엘라 김동희헬레나 지군자스테파니
진정은마리아 박재호베네딕트
이경봉요셉그레고리오 이병국요한

옥토
한중식 전문점

(646) 833-7864
1 E 33St. NY, NY 10016
(33가, 5애비뉴-매디슨 사이)
www.octo.nyc

WONJO
K BBQ since 1993

(212) 695-5815
23 W 32St. NY, NY 10001
www.newwonjo.com

UDON Lab
Udon & Izakaya

(646) 838-5338
43W 32nd St. New York, NY 10001
www.udonlab.com @udonlab_nyc

더큰집
The Kunjip

(212) 564-8238
32 W 32St. NY, NY 10001
www.kunjip.nyc

Kim & Bob Shop
김밥, 비빔밥, 떡볶이 & More

배달 및 포장 전문, 케이터링 주문 환영
(929) 797-1212
826 9th Ave, New York, NY 10019
Between 54 & 55th Street
www.kimandbobshop.com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5 WEST WINE & LIQUOR

린다김 데레사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 10AM-10PM / SUN: 12PM-9PM

마리아 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TEL. 212-594-7773, 646-808-7322

이민/부동산 (아오스딩)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CARGOZONE
LOGISTICS INC

양서윤 플로라 | Flora Yang
marketing@czlusa.com
657-337-5130

Nest Seekers
INTERNATIONAL
부동산

크리샤 박 (917) 370-0394
krishap@nestseekers.com

Clear Laser CITY CLINIC

얼굴 리프팅 / 색소·미백·레이저
보톡스 / 필러 / 여드름 흉터

Tel 212-697-1802 Text 917-670-7801
501 5th Ave #1601, NY, NY 10017

HAPPY HOME CARE

이지원 라파엘라 I:1 맞춤 방문 간호
Registered Nurse (347) 927-5635 (투약·검진·돌봄)
happyhomecare.rn@gmail.com

MIDTOWN SMILE DENTAL
hello@midtownsmiledental.com

임지수 마리아
(212) 532-8666
36 E 36th St. Suite 1K
(36가, 매디슨-파크 사이)

Colleen Insook Lee, M.D.
이인숙 내과

Tel: (212) 714-1170
Fax: (212) 290-9061
drleesmedical.mht@gmail.com (Bet. 32 & 33 St.)
1270 Broadway, #405 New York, NY 10001

다시 만난 신약 성경

성령강림

안소근 실비아 수녀(성도미니코 선교수녀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나에게서 들은 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을 기다려라”(사도 1,4)라고 하셨으니, 일단은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합니다. 사도들은 위층 방으로 올라가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리고, 유다를 대신하여 마티아를 사도로 뽑습니다. 열둘이라는 숫자 자체가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다시 모으는 것을 상징하기에 그 숫자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예수님의 세례 때부터 승천 때까지 함께 있었던 사람이어야 하지만, 무엇보다 “예수님 부활의 증인”(사도 1,22)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 증언한다면서, 그분이 하신 일들을 이야기하고는 “그리고 돌아가셨다.”라고 말하고 끝내서는 안 된다는 뜻이겠지요. 말하자면 그저 훌륭한 한 인물, 좋은 가르침을 전해주시는 분으로 여긴다면 충분치 않다는 것입니다. 제비뽑기로 사도를 정한다는 점도 눈길을 끄니다. 온전히 하느님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기는 것이지요.

그 다음 2장에서, 기다리던 성령이 내려오십니다. 그날은 오순절입니다(사도 2,1). 오순절은 파스카 축제로부터 50일째에 지내던 “주간절”이고 본래는 추수에 대해 감사를 드리던 날이었지만, 나중에는 시나이에서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이라는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에 성령이 내렸다고 하는 것은, 추수보다는 율법과 더 연관이 있습니다. 거센 바람이 부는 소리가 나고 불꽃이 나타났다라는 것도 시나이 산의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과거에 시나이 계약을 통하여 하느님의 백성이 태어났던 것처럼 지금도 성령 강림을 통하여 새로운 하느님의 백성이 태어나게 됩니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사도 1,8). 이제 그들은 힘을 받았고, 온 세상에서 증인들이 될 것입니다.

성령 강림 날의 큰 특징은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모두 사도들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바벨 탑에서 언어가 갈라짐으로써 사람들이 분열되고 흩어졌던 것이 성령을 통해서 이제 회복됩니다. 일치를 이루는 것은 성령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코린토 1서에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에 실린 설교들에서, 듣는 이들이 누구인지에 따라 설교 방식이 달라지는 점도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구약 성경을 인용하며 설교를 하지요. 듣는 이들 중에 많은 이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신약 성경은 없습니다. 사도들은 그 시대 유대인들에게, 구약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증언합니다. 예를 들면, 다윗이 쓴 것으로 여겨지던 시편에서 “당신께서 제 영혼을 저승에 버려두지 않으시고”라고 한 말은 다윗에게서 완전히 성취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죽어 묻혔으므로 이것은 다윗의 후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행전 첫 부분에는 구약의 성취라는 주제가 여러 측면에서 나타납니다. 열두 사도는 흩어진 이스라엘을 다시 모으고, 성령 강림은 새로운 하느님 백성을 탄생시키며, 베드로의 설교는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증언합니다. 교회의 설교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 출처: <의정부주보>, No.1188, 2026. 07월 05일



그림 특상

전수담의 농부 | 하늘에는 땅을 심고, 땅에는 하늘을 심는 농부의 꿈! 다랭이마을의 농부는 오늘도 자갈밭에 호미로 시편을 씹는다. 하늘만 바라보며 비를 빌고, 햇살을 빌고, 씨를 심고, 낱수를 세며, 기도하는 법을 절로 알아갑니다. 가난하게도 살 줄 알고 부자로도 살 줄 안다는 사도 바오로의 고백 같은 말이랑에서 말이죠. 아비 어미의 고민을 아는 자녀들처럼, 가꾸는 대로 자라나 주는 농작물들이 참 대견합니다.

글 · 그림 하삼두 스테파노 | 작가

* 출처: <서울주보>, 제2622호, 2026년 7월 19일(가해)